

광주시 부서간 엇박자 또 꼬이는 민간공원 사업

중앙공원 1지구 사업 계획승인
녹지과, 분양가 2000만원 책정
주택과, 분양가 관리지역 지정
임몰제 앞두고 사업 차질 우려

말 많고 탈 많은 광주민간공원 특례사업이 7월 공원임몰제 시행을 앞두고 광주시의 어수룩한 행태로 스텝이 또 꼬였다. 한쪽 부서에선 이른바 '술 세권' 프리미엄을 붙여 평(3.3㎡)당 2000만원대 고분양가 승인을 추진하고, 다른 부서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해 분양가를 최대 1500만원 수준으로 묶어 놓는 등 엇박자를 내면서 민간공원 사업 추진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사업자 측은 2000만원대 분양가 복귀 또는 공원 내 아파트 면적을 늘리지 않는다면 프로젝트파인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조차 불가능하며 광주시를 상대로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분양가 문제로 공원 내 아파트 면적을 늘릴 경우에는 특혜 의혹 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5일 광주시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인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지하 2층, 지상 27층 2370세대가 들어서는 중앙공원 1지구 분양가는 34평형 기준 평당 1500만원대, 40~50평형대는 평당 2046만원으로 책정됐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 아파트 분양 시세를 고려하면 '초고가'로 평가됐으나, 담당 부서인 광주시 공원녹지과측은 30%까지 허용된 아파트 건설 등 비공원 시설 면적을 7.8%로 제한해 시민에게 90%가 넘는 공원을 되돌려 준 점을 들어 "초고가 분양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 업체측에 공적기부 250억원과 공원 조성비 1300억원 등을 부담하도록 했으며, 이익률 6.99%(세전 1432억원)를 넘어서는 초과 이익에 대해선 모두 공원시설 확충비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반면 광주시 건축주택과는 지난해 6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측에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나섰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은 HUG의 고유권한이지만, 당시 광주시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지정건의를 했고 적극행정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광주시 건축주택과 관계자는 "광주에서 투기 우려 등이 거세지면서 관리지역 지정을 건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담당국인 도시재생국은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해 다른 국들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았고, 공원녹지과를 포함하고 있는 환경생태국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 HUG는 지난해 7월 중앙공원에 있는 서구를 비롯한 남구, 광산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했고, 중앙공원 1지구 '초고가 분양' 전략도 차질을 빚게 됐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1년이 넘으면 인근 아파트 시세의 10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분양가를 정해야 하는데, 이 기준을 중앙공원 1지구에 적용하면 평당 최대 1500만원대로 책정할 수밖에 없어서다.

시는 고분양가 관리지역 지정에도, 한 달여만인 지난해 8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2000만원대 분양가 내용을 담은 사업계획을 조건부 승인하는 등 이색적인 행정을 이어갔다.

광주시는 최근에서야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뒤늦게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한해 고분양가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HUG, 국토부 등에 요청하기로 했지만, 해결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술세권에 살게 되는 소수 시민이 고분양가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대신 다수의 시민이 잘 조성된 공원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서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묶여)분양가가 낮아진다면, 아파트 건설면적을 늘리는 등의 방법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사랑과 감사의 66년
민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재난지원금이 골목상권 살린다

지급 2주간 광주·전남 130만 가구 8200억원 지원 받아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만 11일간 165억원 지역서 사용
음식점 37억여원 가장 많이 사용...슈퍼·편의점 등 2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2주를 맞아 광주·전남지역 130만 가구가 8200억원 상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 사용은 골목상권을 향한 '착한 소비'로 이어지면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남 기준 지급이 완료된 긴급재난지원금 액수는 광주 3603억3700만원·전남 4592억9000만원 등 총 8195억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액 12조7136억원의 6.4%를 차지한다. 지역 수령 가구는 광주 55만·전남 75만 가구 등 129만7735가구이다.

전남 하루 동안에는 광주 1026가구·전남 2360가구가 22억32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광주·전남에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가구가 60.2% (78만1632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금(21%·27만3045가구) 지급이 뒤를 이었고 지역사랑상품권(15.8%·20만4596가구), 선불카드(3%·3만8462가구) 순으로 나타났다.

재난지원금은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기업 계열에서는 쓸 수 없도록 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광주은행이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재난지원금 사용금액을 집계해 결과 총 165억원이 광주·전남지역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1가구당 평균 사용 건수는 8.7건으로, 사용액은 29만5958원으로 조사됐다.

재난지원금이 가장 많이 사용된 곳은 음식점으로, 전체 사용액의 23%에 달하는 37억8700만원이 쓰였다. 슈퍼마켓·편의점 등 유통매장에서는 29억8100만원(18.1%)이 사용되면서 뒤를 이었고 ▲정육점·제과점 등 식품업종 14억5800만원(8.8%) ▲주유소 등 연료판매점 8억5600만원(5.2%) ▲스포츠·레저용품점 8억5300만원(5.2%) 등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주 동안 음식점과 소매점 등에 사용된 재난지원금은 100억원 가까이로, 전체 사용액의 60.3%를 차지했다.

윤행열(73) 광주시 나들가게협의회 이사장(북구 임동마트 운영)은 "긴급재난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사용된 이후 코로나19 이전 매출의 80% 수준으로 회복했다"며 "대부분 생활용품과 쌀·라면 등 식료품을 사는 고객들이 주를 이룬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2월부터 광주지역 나들가게 15개는 매출 부진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아야 했다"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재난지원금으로 동네가게들의 숨통이 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기준 전국 지급 대상 2171만가구 중에서는 92.8%가 지원금을 받았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정부가 25일 전국 버스·택시·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이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탑승을 제한하는 방안을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가운데 광주 전남대학교 후문 버스승강장에서 북구청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은 필수입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마스크 안쓰면 버스·택시 못타요”

오늘부터 대중교통 탑승 제한
비행기 내일부터 착용 의무화

앞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은 버스나 택시 탑승이 제한된다. 버스나 택시 기사가 '노마스크'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어 이용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버스나 택시, 철도 등 운수 종사자나 이용 승객 가운데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교통분야 방역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확대 방침을 밝히면서 이 지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버스나 택시 등 각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

차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탑승 거부 시 내리는 기준의 사업 정지 또는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마스크 미착용 문제를 풀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이 이용하는 대중교통과 관련해 출발 전이나 도착 후 등 각 교통수단의 특성에 맞게 방역 조치를 강화하도록 했으나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곳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

련 종사자의 확진 사례도 꾸준히 증가해 전남 기준으로 운수 종사자가 확진된 사례는 버스가 9건, 택시가 12건 등이다.

정부는 철도와 도시 철도에 대해서는 승객의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유권 해석도 의뢰할 계획이다. 지하철의 경우 운전자가 마스크 착용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현장 관리 직원이나 승무원 등이 각역사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공편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27일 0시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츰츰하게 쌓은 레이어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다

설화수 자음생에센스

얼굴 구석구석에서 전에 없던 그림자가 보인다면
이제, 탄력에 레이어를 쌓아야 할 때
레이어가 쌓일수록 피부는 탄탄하게 차오르니까
탄력을 촘촘하게 레이어드하는 고농축 진세니스피어™ 캡슐에너지로
빈틈없는 탄력각을 세우세요

Sulwhasoo
CONCENTRATED GINSENG
RENEWING SERUM
자음생에센스

Sulwhasoo

• 설화수 플래그십스토어 및 전국 백화점, 이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m • www.instagram.com/sulwhasoo_official • 플래그십스토어: 02-541-9270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